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1년 1월호

Contents

<통계 요약>	2
I. 일본 무역 동향	3
1. 한일 무역 동향	3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6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0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10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11
III. 일본 인적교류 동향	14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14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16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9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9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24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26



<통계 요약>

한일 무역의 2020년 12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1,410	12.6	44,638	2.2	6,772
일본 부분	2,327	1.3	4,712	20.0	-2,385
일본 비중	4.5		10.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일본 전체 무역의 2020년 12월 상황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증감률
수출(백만\$, %)	6,576,097	6,706,199	2.0
수입(백만\$, %)	6,735,246	5,956,643	-11.6
수지(백만\$, %)	-159,149	749,55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7,678	6,691	6,655	-1,879	8,536	4,038
한국 부분(억\$)	179	59	505	97	319	85
한국 비중(%)	2.3	0.9	7.6		3.7	2.1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0년 11월 10일, 12월 8일, 2021년 1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2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12월	2020년12월	증감률		2019년12월	2020년12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1,456,888	62,344	-95.7	전체	2,526,387	58,700	-97.7
방한 일본인	255,356	951	-99.6	방일 한국인	247,959	2,800	-98.9
일본인 비중	17.5	1.5		한국인 비중	9.8	4.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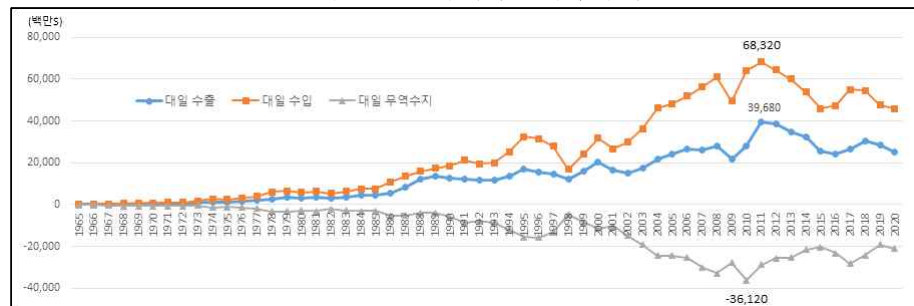
I. 일본 무역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으며,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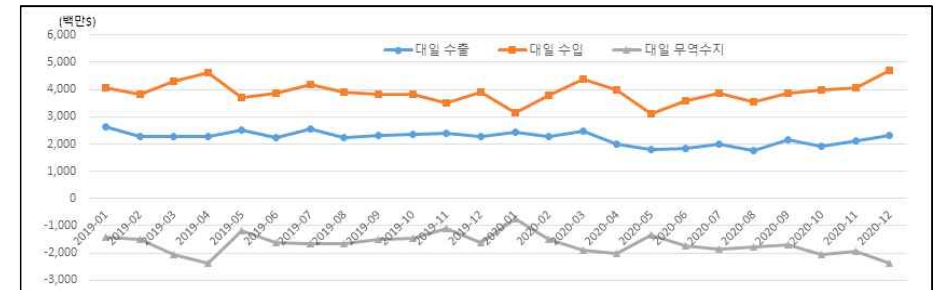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 이후 통계에서 한 해도 예외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2020년에는 대일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수출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커서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11월과 12월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19년 7월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최근 2020년 11월과 12월에는 전월대비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2019년 7월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전월대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였는데, 최근 2020년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모두 전월대비 증가함
- 무역적자는 2020년 2월 이후 계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월에는 감소, 6월 이후는 감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한일 무역의 2020년 12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1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대일(對日) 수출은 1.3% 증가하였지만, 대일 수입은 20.0%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12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51,410	12.6	44,638	2.2	6,772
일본 부분	2,327	1.3	4,712	20.0	-2,385
일본 비중	4.5		10.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0년 12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12.6%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1.3% 증가하여 23.3억 달러가 됨
- 2020년 12월에 전년동월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2.2%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20.0% 증가하여 47.1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67.7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23.9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5%였고, 수입 경우는 10.6%였음
- <표2> 및 <표3>은 2020년 12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MTI 코드 2단위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품목 수가 수출은 6개인 반면, 수입은 8개임

<표2> 한국의 2020년 12월 대일(對日) 수출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12월(백만\$, %)			2020년 12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296	-5.4	-1,629	2,327	1.3	-2,385
1	광물성연료	413	-16.9	340	320	-22.5	271
2	철강제품	294	-10.3	-177	291	-0.7	-116
3	정밀화학제품	170	-2.2	-225	201	18.4	-213
4	산업용전자제품	137	14.4	-112	144	4.8	-147
5	전자부품	159	14.9	-385	142	-10.6	-478
6	금속광물	96	15.3	65	129	34.0	35
7	석유화학제품	109	-18.0	-158	103	-5.4	-213
8	농산물	95	14.5	79	97	2.1	75
9	기초산업기계	69	-8.4	-144	84	20.7	-172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79	5.9	-36	80	0.8	-42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0년 12월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12월(백만\$, %)			2020년 12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925	-8.1	-1,629	4,712	20.0	-2,385
1	정밀기계	278	-27.0	-239	699	151.8	-648
2	전자부품	543	10.2	-385	620	14.2	-478
3	정밀화학제품	395	-12.0	-225	414	4.9	-213
4	철강제품	470	-16.3	-177	407	-13.5	-116
5	석유화학제품	266	-18.4	-158	316	18.8	-213
6	산업용전자제품	249	-3.5	-112	291	16.8	-147
7	기초산업기계	213	8.5	-144	256	20.1	-172
8	플라스틱제품	198	1.0	-138	239	20.6	-175
9	수송기계	209	-15.2	-125	233	11.5	-166
10	산업기계	168	-0.5	-97	151	-10.3	-77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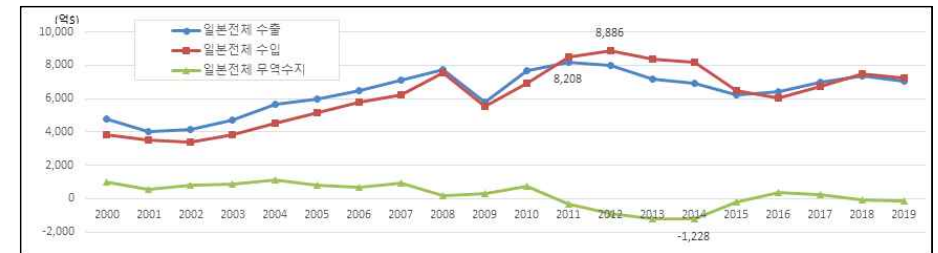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금속광물(34.0%), 기초산업기계(20.7%) 등 6개 항목이 증가하였고, 광물성연료(-22.5%), 전자부품(-10.6%) 등 4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동월대비 정밀기계(151.8%), 플라스틱제품(20.6%), 기초산업기계(20.1%) 등 8개 품목이 증가하였고, 철강제품(-13.5%)과 산업기계(-10.3%) 2개 품목이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무역 동향

□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3> 일본 전체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 일본 전체 무역의 2020년 12월 상황

- <표4>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약간 증가한 반면, 수입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4> 일본 전체 무역의 2020년 12월 상황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증감률
수출(백만¥, %)	6,576,097	6,706,199	2.0
수입(백만¥, %)	6,735,246	5,956,643	-11.6
수지(백만¥, %)	-159,149	749,55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지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플라스틱, 비철금속, 반도체등제조장치 등의 증가, 그리고 광물성연료, 자동차, 철강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여 6조 7,062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粗油), 석탄, 항공기류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하여 5조 9,566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에는 적자였으나, 2020년 12월에는 7,496억 엔의 흑자로 전환함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2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 경우는 금액이 증가한 국가도 감소한 국가도 있지만, 수입 경우는 금액이 감소한 국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8.4%, 수입의 51.4%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 수입은 감소하였고,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8,533억 엔으로 56.5% 증가하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3.2%, 수입의 26.3%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122억 엔으로 90.5% 감소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6.6%, 수입의 4.0%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2,063억 엔으로 0.6% 증가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7.2%, 수입의 4.4%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2,213억 엔으로 85.0% 증가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8.1%, 수입의 9.8%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272억 엔으로 32.9% 증가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년동월대비 수출 수입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7.6%, 수입은 2.5%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19.5%, 수입은 13.9% 감소하였음

<표5> 일본 전체 무역의 2020년 12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6,706,199	100.0	2.0	5,956,643	100.0	-11.6	749,556	-
아시아	3,914,732	58.4	6.1	3,061,446	51.4	-2.6	853,286	56.5
중국	1,556,599	23.2	10.2	1,568,791	26.3	1.8	-12,192	-90.5
홍콩	329,492	4.9	6.4	11,144	0.2	-61.5	318,348	13.4
대만	443,733	6.6	-2.6	237,469	4.0	-5.2	206,264	0.6
대한민국	485,626	7.2	20.8	264,305	4.4	-6.4	221,321	85.0
싱가포르	177,420	2.6	-4.2	66,798	1.1	-7.0	110,622	-2.5
태국	273,771	4.1	1.5	230,768	3.9	4.9	43,003	-13.2
말레이시아	135,174	2.0	7.1	153,925	2.6	2.0	-18,751	-23.9
인도네시아	83,531	1.2	-28.2	155,093	2.6	-8.9	-71,562	33.0
필리핀	86,827	1.3	-3.6	86,583	1.5	-9.6	244	-
베트남	176,802	2.6	5.7	199,835	3.4	-3.3	-23,033	-41.5
인도	110,766	1.7	7.7	36,897	0.6	-33.8	73,869	56.8
대양주	141,740	2.1	-1.7	384,377	6.5	-16.3	-242,637	-23.0
호주	110,793	1.7	-3.7	353,126	5.9	-11.5	-242,333	-14.6
뉴질랜드	21,783	0.3	21.1	17,791	0.3	-15.0	3,992	-
북미	1,289,026	19.2	-0.7	676,560	11.4	-23.5	612,466	48.0
미국	1,212,817	18.1	-0.7	585,602	9.8	-21.9	627,215	32.9
캐나다	76,209	1.1	-1.1	89,929	1.5	-33.1	-13,720	-76.1
중남미	212,991	3.2	-9.3	253,954	4.3	-7.8	-40,963	0.5
서유럽	727,129	10.8	-4.5	826,324	13.9	-3.5	-99,195	5.1
독일	173,842	2.6	-7.6	206,289	3.5	-2.5	-32,447	39.1
영국	100,413	1.5	-19.5	64,144	1.1	-13.9	36,269	-27.9
프랑스	60,067	0.9	-12.0	115,746	1.9	0.9	-55,679	19.8
네덜란드	123,530	1.8	13.4	52,515	0.9	92.1	71,015	-12.9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46,999	2.2	8.0	168,573	2.8	-25.7	-21,574	-76.3
중동	186,328	2.8	-18.6	499,271	8.4	-39.1	-312,943	-47.0
아프리카	87,255	1.3	5.4	86,136	1.4	23.7	1,119	-91.5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지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12월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년동월대비 수출 경우는 증가 품목이 감소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수입 경우는 감소 품목이 증가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많음
- 수출 경우는 원료품이 24.1%, 식료품이 13.9%, 화학제품이 10.0%, 전기기기가 6.6%, 기타가 5.3%, 일반기계가 0.3%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가 51.5%, 수송용기기가 2.7%, 원료별제품이 1.6% 감소하였음

- 증가기여도가 높은 화학제품의 경우 세부적으로 유기화합물이 10.2% 감소한 반면, 의약품과 플라스틱이 각각 24.5%, 12.8% 증가하였음
- 수입 경우는 일반기기가 1.3%, 전기기기가 0.2% 증가한 반면, 나머지 항목은 감소하였는데, 감소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광물성연료가 36.3%, 기타가 9.8%, 수송용기기가 14.8%, 화학제품이 7.7% 등으로 감소하였음
- 광물성원료에 속하는 원유및조유(粗油),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석탄의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47.9%, 30.3%, 17.8%, 27.9%, 34.8% 감소하였음

〈표6〉 일본 전체 무역의 2020년 12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706,199	100.0	2.0	2.0	5,956,643	100.0	-11.6	-11.6
1 식료품	86,483	1.3	13.9	0.2	586,824	9.9	-2.7	-0.2
2 원료품	111,014	1.7	24.1	0.3	408,064	6.9	-2.2	-0.1
3 광물성연료	53,891	0.8	-51.5	-0.9	988,081	16.6	-36.3	-8.4
4 화학제품	833,689	12.4	10.0	1.2	588,352	9.9	-7.7	-0.7
5 원료별제품	696,147	10.4	-1.6	-0.2	551,985	9.3	-1.0	-0.1
6 일반기계	1,331,608	19.9	0.3	0.1	627,637	10.5	1.3	0.1
7 전기기기	1,255,009	18.7	6.6	1.2	1,047,525	17.6	0.2	0.0
8 수송용기기	1,409,282	21.0	-2.7	-0.6	297,450	5.0	-14.8	-0.8
9 기타	929,078	13.9	5.3	0.7	860,725	14.4	-9.8	-1.4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1년 1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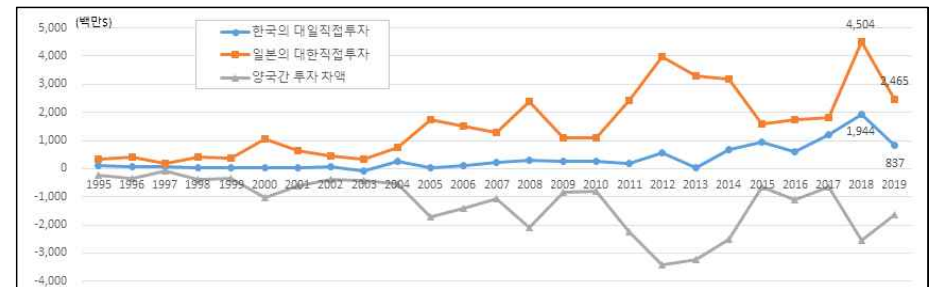
II. 일본 직접투자 동향

1.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4〉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7>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7,678	6,691	6,655	-1,879	8,536	4,038
한국 부분(억¥)	179	59	505	97	319	85
한국 비중(%)	2.3	0.9	7.6		3.7	2.1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0년 11월 10일, 12월 8일, 2021년 1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10월에는 6,655억 엔(실행 33,999; 회수 27,344)이었으나, 11월에는 8,536억 엔(실행 29,954; 회수 21,418)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10월 505억 엔(실행 657; 회수 152)에서 11월 319억 엔(실행 503; 회수 183)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서 3.7%로 감소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10월에는 -1,879억 엔(실행 24,810; 회수 26,688)으로 마이너스였으나, 11월에는 4,038억 엔(실행 26,736; 회수 22,698)으로 플러스로 전환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는 10월 97억 엔(실행 166; 회수 69)에서 11월 85억 엔(실행 92; 회수 6)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월에 2.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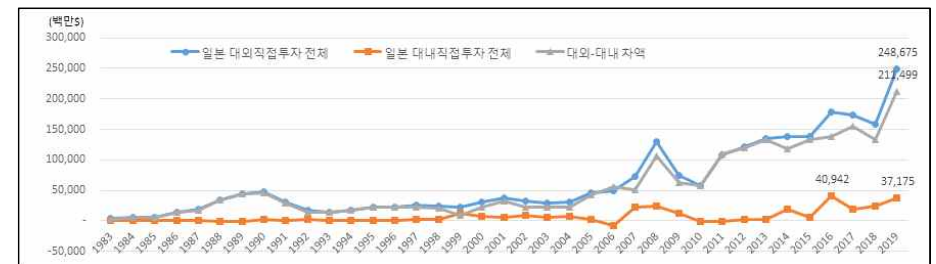
2. 일본 전체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5>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8>은 2020년 11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대외직접투자 8,536억 엔, 대내직접투자 4,038억 엔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음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8,536억 엔(실행 29,954; 회수 24,418)으로 플러스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아시아(33.2%), 북미(31.8%), 유럽(23.7%), 중남미(12.6%), 대양주(1.7%)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아프리카와 중동은 실행보다 회수가 더 많아 순투자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2,581억 엔), 싱가포르(1,285억 엔), 영국(1,088억 엔), 중국(794억 엔)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4,038억 엔(실행 26,736; 회수 22,698)으로 플러스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북미(51.1%), 유럽(30.3%), 아시아(15.5%) 등으로부터 투자가 많았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2,057억 엔), 스위스(747억 엔), 싱가포르(435억 엔), 프랑스(231억 엔), 중국(175억 엔) 등으로부터 투자가 많았음

〈표8〉 일본 전체 직접투자의 2020년 11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8,536	100.0	4,038	100.0
아시아	2,836	33.2	626	15.5
중국	794	9.3	175	4.3
홍콩	-198	-2.3	61	1.5
대만	89	1.0	10	0.2
한국	319	3.7	85	2.1
싱가포르	1,285	15.1	435	10.8
태국	213	2.5	-147	-3.6
인도네시아	-66	-0.8	—	—
말레이시아	165	1.9	-1	0.0
필리핀	-52	-0.6	—	—
베트남	238	2.8	1	0.0
인도	128	1.5	4	0.1
북미	2,713	31.8	2,063	51.1
미국	2,581	30.2	2,057	50.9
캐나다	132	1.5	6	0.1
중남미	1,074	12.6	51	1.3
대양주	143	1.7	75	1.9
호주	150	1.8	81	2.0
뉴질랜드	-15	-0.2	2	0.0
유럽	2,025	23.7	1,222	30.3
독일	169	2.0	-38	-0.9
영국	1,088	12.7	119	2.9
프랑스	-476	-5.6	231	5.7
네덜란드	-359	-4.2	-19	-0.5
중동	-29	-0.3	1	0.0
아프리카	-226	-2.6	—	—

출처: 일본 재무성 직접투자 관련 속보(2021년 1월 12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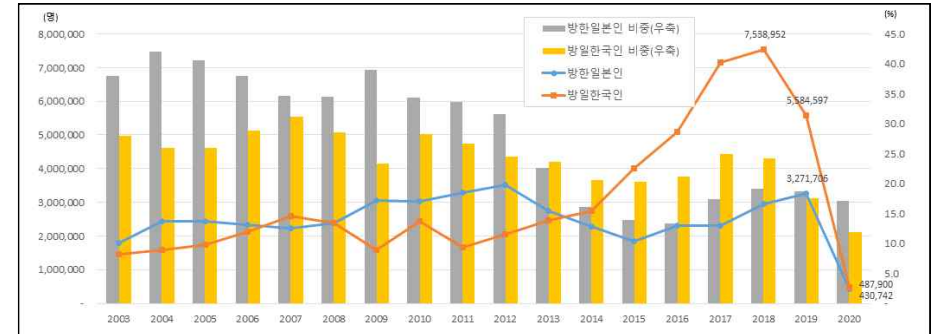
Ⅲ. 일본 인적교류 동향

1.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일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방일한국인 및 방일일본인 양쪽 모두 급감하였음

〈그림6〉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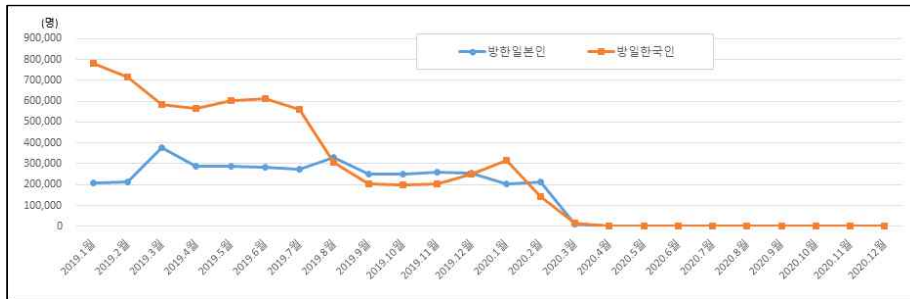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약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약 558만 명이 되었고,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9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약 327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약 43만 명으로 급감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방일외국인 총수는 2019년 약 3,188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412만 명)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약 1,750만 명, 2020년은 예외적으로 약 252만 명)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7>은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 3월부터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가 나타남

<그림7>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10월 927명, 11월 1,254명, 12월 951명 등으로 COVID-19 영향으로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이후 감소 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감소 그리고 3월부터 급감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49명, 9월 1,426명, 10월 2,021명, 11월 2,800명, 12월 2800명 등으로 COVID-19 영향으로 3월부터 급감하였다가 6월부터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2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2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9>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12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12월	2020년12월	증감률		2019년12월	2020년12월	증감률
전체(교포 포함)	1,456,888	62,344	-95.7	전체	2,526,387	58,700	-97.7
방한 일본인	255,356	951	-99.6	방일 한국인	247,959	2,800	-98.9
일본인 비중	17.5	1.5		한국인 비중	9.8	4.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객수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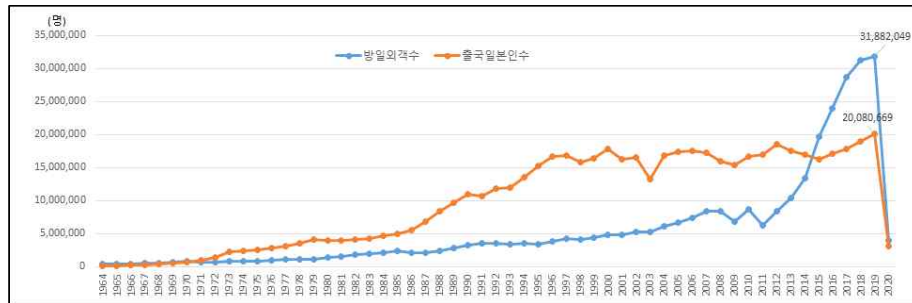
- 12월 방한외국인(교포 포함) 전체 수는 62,34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5.7%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95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9.6%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12월 17.5%에서 2020년 12월 1.5%로 감소하였음
- 12월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58,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7%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2,8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8.9%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12월 9.8%에서 2020년 12월 4.8%로 감소하였음

2. 일본 전체 인적교류 동향

□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8>은 일본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 이후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 1964년 이후 1970년까지는 방일외객수가 출국일본인수를 초월하였으나 1971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출국일본인수가 방일외객수를 초월하였으나, 2015년부터 후자가 전자를 초월하기 시작함
- 아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관광객 유치로 인해 방일외객수는 2019년에 약 3,188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출국자수 약 2,008만 명보다 약 1,180만 명 더 많음
- 2020년에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방일외객수와 출국일본인수 양쪽 모두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각각 약 400만 명과 약 314만 명으로 됨

〈그림8〉 일본 전체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인적교류의 2020년 12월 상황

- <표10>은 2020년 12월 방일외객수의 국가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전체 측면에서도 개별 국가 측면에서도 방일외객수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12월 방일외객 전체 수는 58,7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7% 감소하였음
- 방일외객 중 한국인 수는 2,80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8.9%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중국인 수는 18,400명으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7.4%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대만인 수는 1,000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9.7%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홍콩인 수는 300명으로 전체의 0.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9.9%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베트남인 수는 15,700명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48.7% 감소한 수치임
- 방일외객 중 미국인 수는 1,300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99.1% 감소한 수치임

〈표 10〉 방일외객수의 2020년 12월 상황

국가·지역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방일외객수(명)	비중(%)	방일외객수(명)	비중(%)	
전체	2,526,387	100.0	58,700	100.0	-97.7
한국	247,959	9.8	2,800	4.8	-98.9
중국	710,234	28.1	18,400	31.3	-97.4
대만	348,269	13.8	1,000	1.7	-99.7
홍콩	249,642	9.9	300	0.5	-99.9
태국	164,936	6.5	700	1.2	-99.6
싱가포르	100,376	4.0	100	0.2	-99.9
말레이시아	78,250	3.1	300	0.5	-99.6
인도네시아	59,203	2.3	3,300	5.6	-94.4
필리핀	81,542	3.2	2,300	3.9	-97.2
베트남	30,606	1.2	15,700	26.7	-48.7
인도	11,739	0.5	1,600	2.7	-86.4
호주	72,653	2.9	200	0.3	-99.7
미국	144,498	5.7	1,300	2.2	-99.1
캐나다	35,132	1.4	200	0.3	-99.4
멕시코	6,499	0.3	50	0.1	-99.2
영국	27,750	1.1	400	0.7	-98.6
프랑스	20,261	0.8	400	0.7	-98.0
독일	13,639	0.5	300	0.5	-97.8
이탈리아	11,196	0.4	200	0.3	-98.2
러시아	8,833	0.3	400	0.7	-95.5
스페인	7,295	0.3	100	0.2	-98.6
중동지역	5,554	0.2	100	0.2	-98.2
기타	90,321	3.6	8,550	14.6	-90.5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IV. 일본경제 및 일본기업 동향

1.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1년 1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1월 22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1>과 같음

<표11>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4-6월	2020년 7-9월	2020년 10-12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6	0.3		-10.3	-5.7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2.3	0.8		-3.4	-2.9		-1.9	-1.2	-1.8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총합지출(수송기계제외)	3.9	-5.8		-12.7	-19.8		-22.8	-1.8	4.0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80.0 -12.4	82.1 -10.1		81.5 -9.9	80.2 -8.3	82.0 -3.7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4.2	7.0		11.5	11.1	3.3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25.1 -4.8	-14.9 -11.4		-7.7 -8.4	-1.6 -5.7	-4.0 P -2.4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19.8	-12.8		-9.0	-3.0	-3.9	
<법인경상이익-계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46.6	-28.4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1,837 -11.4	2,021 -7.3	1,751 -20.8	565 -19.5	624 -20.0	569 -21.7	558 -20.7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8	3.0		3.0	3.1	2.9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2.3 0.1	-0.8 0.2	P -2.1	-0.8 0.0	-2.1 -0.4	-2.3 -0.9	P -2.0
<금융> 네키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2,705 106.73	20,784 107.61	22,906 106.20	25,194 104.49	23,306 105.74	23,451 105.24	25,384 104.40	26,772 103.82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12월, 2021년 1월 등)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11월 전월 대비 0.1% 감소함

- ‘가계조사’ (11월)에서는 실질소비지출은 전월대비 1.8% 감소하였고, 판매측 통계인 ‘상업동태통계’ (11월)에서는 소매판매액이 전월대비 2.1% 감소함
-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 한편, 소비자 심리는 약세 상태임
- 최근 상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면, 재화 분야에서는 완만하지만 전향적인 움직임이 보이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보임
-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가전판매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외식은 최근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고, 약세로 움직이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개인소비는 회복 움직임에 답보 상태가 보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감염증 확대 방지책을 강구해 가는 가운데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감염증 확대에 따른 하향 리스크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설비투자는 감소가 멈추고 있는 중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보고(季報)’ (7-9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2020년 7-9월기는 전기 대비 1.2% 감소하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 감소, 비제조업이 1.3% 감소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로 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최근 약세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12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전체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어느 쪽도 감소가 예상됨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며,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장래가 불투명하는 인식이 있지만,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 등을 배경으로 회복 쪽으로 방향 전환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건설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11월 전월 대비 2.3% 증가하여 연율 82.0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분간 보합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투자는 전실하게 추이하고 있음
 - 11월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0.3% 증가, 12월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월 대비 9.7% 감소, 11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 대비 2.8%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전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무역·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되고 있음
 -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아메리카 쪽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EU 및 기타 지역 쪽 수출은 회복되고 있음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에 관해서는 12월의 방일외객수는 전년동월대비 97.7% 감소하였음
 -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이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감소가 멈추고 있음
 - 무역·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되어 있음
 - 11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되고 있음
 - 광공업생산지수는 11월에 전월 대비 0.5% 감소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11월에 전월 대비 1.5%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12월은 전월 대비 1.1% 감소, 1월은 전월 대비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최근 보합 상태이고, 생산용 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전자 부품·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새로운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그 폭에는 축소가 보이고 있으며,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최근 신중함이 보이고, 도산건수는 최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법인기업통계조사’(7-9월기 조사)에 따르면, 2020년 7-9월기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28.4% 감소, 전기 대비 33.7% 증가로 나타남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13.2%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4.1%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43.4%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25.3%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신중함이 보임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3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 대비 약간 신중한 견해로 나타남
- 도산 건수는 최근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11월 569건, 12월 558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11월 1,021억 엔, 12월 1,385억 엔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11월에 전월 대비 0.2% 포인트 낮아져 2.9%로 됨
 - 노동력 인구 및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완전실업자 수는 감소하였음
 - 고용자 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신규 구인 수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유효구인배율은 최근 보합권내로 되어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회복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는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현금급여총액은 연말상여금을 포함한 특별급여가 감소함에 따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觀(12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 판단은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초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과잉초과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바닥이 견고하게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 상태임
 - 12월 국내기업물가는 전월 대비 0.5%로 상승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는 최근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 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살펴보면, 12월에는 전월 대비 2.5% 포인트 하락하여 65.9%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정책에 따른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보합권내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고-엔저-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주가는 26,500엔대에서 26,800엔대까지 상승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3엔대에서 102엔대로 엔고 방향으로 추이한 후 104엔대로 엔저 방향으로 추이하다가 다시 103엔대까지 엔고 방향으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3%대에서 -0.00%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보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 대비 5.9%(12월) 증가하였음
 - 머니트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18.3%(12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9.2%(12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1년 1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1년 1월 22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고용 확보와 사업 계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이에 더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디지털 개혁 및 그린 사회 실현 등의 새로운 목표에 관해 규제개혁 등 집중적인 개혁과 필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강인한 경제성장을 실현함
- COVID-19 감염증의 감염확대에 대해서는 1월 7일 및 13일에 신형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에 기반하여 11개 도부현(都府縣)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사태선언을 출발시켰으며, 이에 기반하여 감염확대 억제에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책을 철저히 함
 -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중점적·효과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함
 - 나아가 성장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담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촉구하여 민간수요 주도의 성장궤도 실현에 연결시킴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등을 구체화 하는 2020년도 제3차 보정예산 및 2021년도 예산 및 관련법안의 조기 성립을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예비비도 활용하여 지원책을 강구해 나감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져 있음
 - 일본 은행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주시하고,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을 실행하여,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함

2. 일본경제 최근 동향

□ COVID-19 관련 대응

- 일본 정부는 COVID-19로 긴급사태선언 발표
 - 1월 4일 도쿄도와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3개 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 선포 검토에 들어간다고 표명하고 외국과의 출입국 제한을 강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음
 -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유입방지 대책을 강화한다고 1월 8일 발표했으며, 나리타공항 검역소에서 1월 9일부터 해외에서 입국·귀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바이러스 검사가 시작되었음
 - 일본 정부는 1월 13일 이후에는 입국이나 귀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출국 전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 COVID-19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오사카,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후쿠오카, 도치기를 긴급사태선언 대상에 추가할 방침을 1월 12일 결정했으며, 기존에 발령된 수도권 네 곳과 함께 전체 11개 도부현(都府縣)으로 확대함
 - 대상지역에서는 각 지사가 음식점에 오후 8시까지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에 응하는 음식점에는 1일 최대 6만 엔의 협력금을 지급하며, 이벤트 입장제한 및 재택근무 등을 통한 출근자 7할 삭감도 요청함
(출처: NHK, 2021.01.09.; 산케이신문, 2021.01.12.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 COVID-19로 인한 일본 중소기업들의 상황 및 업종별, 지역별 격차
 - ‘도쿄 중소기업인 동우회’의 도쿄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한 영향 설문조사 결과 80.0%의 기업들이 경영에 영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연간 매출 전망에 대하여 ‘10.0% 이상~30.0% 미만 감소’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35.1%였으며, ‘30.0%이상 감소’도 20.1%에 달했음
 - 긴급사태선언의 대응으로는 새로운 업태나 서비스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 28.0%로 나타났음
 - 한편, 대기업을 중심으로 원격근무를 강화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지역 간 격차 등이 문제로 나타남
 -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대기업을의 상당수는 2020년 긴급사태선언 때보다 원격근무를 강화하고 감염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히타치제작소, 테이진, JR서일본 등은 출근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간사히미라이은행, 미나토은행은 새틀라이트오피스(Satellite Office: 위성사무실)를 늘렸음

- 그러나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현장근무가 필수적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원격근무가 어려우며, 이러한 업종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과 비교하여 원격근무 실시율이 낮음
- 퍼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원격근무 실시율은 수도권 1도 3현이 38.5%, 오사카, 효고, 교토의 3부현은 22.1%로 지역 차이를 보였음
(출처: NHK, 2021.01.13.; 산케이신문, 2021.01.20.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 한일 관계

- 미쓰비시중공업의 즉시 항고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배상 판결
 -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근로정신대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대지법에서 압류명령서를 보내려고 했으나 일본 정부가 수령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으며, 2020년 12월 29일과 30일에 효력이 발생하였음
 - 별도의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제철(前 신일철주금)도 자산압류 명령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뒤 즉시 항고했지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아 상급심 심리가 계속되고 있음
 -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1월 9일 판결문이 일본 정부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타국의 재판권에 불복하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에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면서 항소하지 않을 방침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은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전화로 항의함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월 21일 중의원 본 회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함
(출처: 산케이신문, 2021.01.03.; 산케이신문, 2021.01.09.; NHK, 2021.01.10.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 일본산 스테인리스 강재 관세 시정 요구에 대해 WTO 상소
 - 한국 정부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강재에 대해 2004년부터 15%의 관세를 부과했음
 - 일본 정부는 2018년에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으며, 2020년 11월 WTO의 1심 소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하였음
 - 한국 정부는 2심인 상급위원회에 상소하는 절차를 밟았음
 - WTO 상급위원회는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음

3.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자동차산업 동향

- 전동화로 인한 신흥세력의 대두와 전기자동차 가속화로 인한 비즈니스 기회
 - 탈탄소로 전동화가 가속화되며 한국, 대만의 전자회사가 차량 비즈니스를 강화함
 - 한국의 LG전자는 2020년 말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제휴하여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LG전자는 마그나와 합작하여 ‘전기 액슬(eAxle)’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구동 시스템의 사업 전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 액슬은 전동차량에 필요한 부품을 통합한 시스템으로 부품 개수가 줄어들어 비용 절감, 소형경량화, 전기자동차 개발 효율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대만의 훙하이정밀공업은 전기차 배터리 공동개발로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의 닝더스다이(CATL)와 제휴했음
 - 한국과 대만의 전자회사가 자동차시장을 노리는 것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 따라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전기자동차에서는 사용하는 부품 수가 기존에 비하여 거의 절반으로 감소함
 - 경제산업성이 2020년 자동차 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전문검토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소재·부품시장의 부가가치는 차량조립의 부가가치와 비교하여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함
 - 자동차를 기간산업으로 하는 독일에서는 미래 자동차에 관한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 전기자동차와 그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2030년에 2017년 대비 최대 41만 명의 고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함
 - 일본의 경우에도 전동화가 고용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
 - 한편, 닛산자동차는 2030년대에 세계 주요시장에 판매할 신차를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1월 27일 발표했음
 - 이는 세계적인 탈탄소화를 위한 환경규제 강화 속에서 전동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닛산은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신하는 ‘전고체배터리’의 개발을 서두르고, 독자적인 하이브리드차 기술인 ‘e Power’의 개량도 추진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배출을 실질제로 실현을 목표로 함
 - 전세계적인 탈탄소화 이슈로 산업계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전동화로 인해 자동차업종의 기업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산케이신문, 2021.01.11.; 요미우리신문, 2021.01.27.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 일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산업 동향

- 차량용 전지 수요 확대에 따른 산업의 변화
 - 2021년 차량용 전지 생산량이 2020년보다 70% 증가할 전망이다 것으로 밝혀졌음
 - 한편, 일본의 리튬이온배터리 재료 산업은 전지재료 공급 사슬에서 중국업체의 대두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음
 - 아사히카세이는 2019년 주력인 세퍼레이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 상하이에너지에 내줬음
 - 일본 업체는 차량용 배터리 시장으로의 전환, 한국 및 중국 전지 업체들의 대두,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추진 등으로 인해 전지 재료에서 점유율이 하락
 - 차량용 전지의 세계 점유율에서도 중국의 CATL이 선두이며, LG화학도 미국의 제너럴모터스와 합작하여 출하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음
 - 향후 차량용 전지는 세계적인 가솔린차 규제에 따라 한층 수요가 확대될 것임
 - 미쓰비시케미칼이나 스미토모화학은 생산증강이나 코스트 삭감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음
 - 중국 업체와 제휴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테이진은 상하이에너지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퍼레이터에 코팅을 하는 사업에 대해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2019년 체결하였음
 - 차량용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와 재료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의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미쓰비시케미칼은 미국, 영국, 중국의 전해액 생산 설비 증강을 위해 수십억 엔 규모의 설비 투자를 실시함
 - 스미토모화학이나 아사히카세이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재료인 양극재나 전해액 등의 양산 및 생산설비 강화에 나서고 있어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출처: 아사히신문, 2021.01.13.; 닛케이신문, 2021.01.20.; NHK, 2021.01.24.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 일본 통신산업 동향

- 미국, 영국과의 연계 강화로 통신산업에서 열세였던 일본 기업에 기회가 생김
 - 5G 통신망 정비를 위해 일본, 미국, 영국 정부가 연계를 강화할 것을 분명히 했음
 - 기존에는 중국의 화웨이와 광범위한 상품군과 저렴한 코스트로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았으며,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3사가 전세계 78.0%의 점유율을 보임

통신기지국 관련 세계시장 점유율

기업명	국가	점유율
화웨이	중국	33.1%
에릭슨	스웨덴	25.0%
노키아	핀란드	19.9%
NEC	일본	0.7%
후지쯔	일본	0.6%
기타		20.3%

출처: 2019년 영국조사회사 Omdia 조사

- 미국과 영국은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화웨이 제품의 기기를 배제하고 조달처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NEC, 후지쯔 등 일본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임
- NEC는 NTT와 자본 및 업무제휴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지국을 개발 중이며, 후지쯔도 해외사업을 강화할 방침임

(출처: 요미우리신문, 2021.01.11.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 일본 탈탄소 관련 산업 동향

- 일본 정부의 탈탄소를 위한 정책 방향
 - 일본 정부는 탈탄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대기 중에 배출되기 전 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땅 속에 저장) 보급을 위해 새로운 법안 성립을 포함한 사업환경 정비를 검토함
 - CCS에 대해 현재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에서는 일본 국내 처음으로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누계 30만 톤의 이산화탄소 압입을 달성했고 안전성도 확인했으며, 저장기술의 연구개발, 적정지역 선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함
 - 아시아 및 미국, 호주 등과 연계해 일본의 견해를 공유하고 세계에 CCS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음
 - 1월 19일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추진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개정 초안을 정리하고, 2021년부터 5년간의 연구개발비 투자목표를 30조 엔으로 설정하였는데,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향한 기술혁신 등을 지원함

(출처: 산케이신문, 2021.01.03.; 닛케이신문, 2021.01.19.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 일본 기업들의 탈탄소 추진 상황
 - 일본의 기업들도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탈탄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

- 부동산 대기업인 미쓰비시지소는 도쿄 마루노우치 지구의 약 30동의 빌딩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탈탄소를 추진하며, 전력은 ENEOS가 다루는 바이오메스 발전 등에서 조달함
- 도큐부동산은 2025년을 목표로 전국에 보유하는 전체시설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변경하며, 참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전원을 활용
-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전기이용에 대한 비용은 오르지만, 두 회사는 증가된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방침임
- 미쓰이부동산, 텃코빌딩도 재생에너지를 도입함
- 경제산업성은 2050년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약 50~60%로 높이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미쓰비시상사는 지구 환경을 고려한 콘크리트 생산방법 확립에 나섬
- 미쓰비시상사는 캐나다의 카본큐어와 자본 업무 제휴를 했는데, 카본사는 석회석을 구웠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시멘트에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음
- 이 외에도 골재에 이산화탄소를 봉입하는 기술을 가진 미국 스타트업인 블루 플라네틱에도 출자했으며, 카시마 등과도 레미콘을 굳힐 때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기술을 개발 중임
-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으로 일본 기업들도 탈탄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출처: 닛케이신문, 2021.01.18.; 2021.01.29.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 일본의 수소관련 산업 동향

- 가와사키중공업은 대형선에서는 세계 최초로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액화수소의 대형운반선의 건조에 나섬
- 대형선의 대부분은 중유를 사용한 엔진이나 증기터빈으로 운행 중에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함
- 가와사키중공업은 환경적인 면에서의 강점으로 한국과 중국의 선박 대기업과 차별화를 진행할 계획임
- 한편, 스미토모상사는 생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그린수소 사업에 진출, 닛키홀딩스와 제휴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 생성 설비를 설치하고 저렴한 태양광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판매함
- 수소는 연소해도 온난화 가스가 발생하지 않지만, 화석연료에서 꺼내 저비용으로 대량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지만 생성비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었음
- 대량생산으로 생성비용을 낮춰 수송비를 보완할 계획임

(출처: 닛케이신문, 2021.01.21.; 요미우리신문, 2021.01.23. 기사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